마음의 결혼이 망쳐진 후유증

(잠언 22:17~29)

22.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23.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24.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26.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27.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28.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29.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결혼이 망쳐진 후유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의 결혼이 망쳐진 후유증'
흔히 결혼이라고 하면 남녀의 결혼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각자가 하나님과 마음의 결혼을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마음의 결혼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이 깨어지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육신의 결혼생활에서 기쁨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이 기쁨을 뜻하듯이 에덴 바깥은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땅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육신의 부부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쁨도 만족도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와 대한항공의 한진 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항공 일가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은 유복한 조건은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 화로 가득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화나게 했을지

복음적 심리학으로 관찰해봅니다.
복음적 심리학이란 말은 정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반하여 사람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심리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 점을 반복해서 배워왔습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돌판은 인격적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을 상징합니다. 법궤는 이름과 등가입니다. 지성소의 법궤처럼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소에는 분향단과 등잔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뜻합니다. 즉 지성소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게 됩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추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추구함의 방식을 상징하는데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떡상은 추구의 목적을 상징합니다. 추구함의 목적은 곧 배부름을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표현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의 공백은 기쁨과 만족으로 귀결되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으로 배부르며 사는 것이 선민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심리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적 심리학으로 한진 일가를 살펴보면 어디에서 분노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재벌은 돈이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 믿어서 돈을 추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셔야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공백을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다만 돈을 가지거나 씀으로써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지고 써도 기쁨과 만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배신감이 생깁니다. 배신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육체를 통해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기에 육체가 죽으면 마음도 채울 수 없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사는 가운데 돈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 더 많은 돈을 추구하지만 돈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이 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이유입니다.
이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대중의 용서를 구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진 일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붙잡고 있는 한 누구나 괴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 돈이 차지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그 어떤 괴물 같았던

사람도 천사나 성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들을 지탄하고 욕을 하기에 앞서 안타깝게 여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 10장으로부터 산발적으로 제시된 것처럼 보였던 375개의 경구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2장부터 24장까지는 30개의 주요한 교훈과 6개의 부록을 담은 잠언 모음집입니다. 앞서 보았던 내용들과는 조금 형식이 달라집니다. 앞선 경구들은 의인과 악인을 대칭적으로 비교하였고, 구절들이 산발적으로 나열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대칭적 비교가 없는 30개의 교훈과 6개의 부록 교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읽지 않은 17~19절에서 주제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17~18절을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께 듣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을 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말과 행동은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의 중심이 되는 '의뢰'라는 말이 36개의 교훈들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뢰는 곧 제목에서 살펴보았던 마음의 결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뢰의 의미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이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뢰함이 아닙니다. 결국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자녀를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사업을 의뢰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만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끝나는 이유도 자녀가 잘되는 것이 기쁨과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뢰는 마음 공백을 채움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더라도 그 마음은 돈이나 건강 혹은 자녀를 의뢰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청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할 뿐이지 진심으로 의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뢰는 마음 공백을 채워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믿

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에 이들은 서로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몸은 세상에서 합법적 부부로 살아가더라도 마음은 서로를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결합해야만 합니다.
2000년도 말부터 우리나라의 결혼 건수는 점점 낮아져서 30만 쌍이었다가 현재는 20만 쌍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 결혼 건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결혼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쳐진 결혼입니다. 망쳐진 결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과 같은 증상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증상들이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 공백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이에 보태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결혼이 파탄 지경에 이르면 나타나는 증세 중의 하나로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함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과 마음이 결혼하게 되면 꼭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하게 됩니다.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는 곧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침 흘리며 좋아하는 가치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왜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하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 즉 돈을 의뢰하는 성향대로라면 돈이 많은 부자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만족의 상태에서는 너그러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경사가 있어서 일시적으로라도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생기면 한 턱 내고 퍼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그러움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을 위해 자기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움이 바로 기쁨과 만족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는 없는 자들의 돈을 더욱 착취하고 탄압하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선민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붙잡습니다.
돈을 믿는 것은 곧 마음이 돈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여 많은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돈이 정말로 기쁨과 만족을 주었다면 이제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돈 없는 약자에게 가혹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

음이 결혼하지 않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돈뿐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만족을 주리라 믿어서 결국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쁘고 만족하여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체 무엇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 돈을 모으고자 했는지요? 교회에서 무엇을 듣고 배우셨기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자 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문제가 드러나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과 마음의 결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축복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것과 마음이 결혼하게 되면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24절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던 말씀에서 나타난 탈취와 억압은 흔히 말하는 갑질적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가진 자만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것과 마음이 결혼하면 갖지 못한 자도 똑같습니다.
이름을 붙잡는 것이 의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의 결혼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돈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한편 부자는 돈을 가져도 만족이 없으니 그에 대한 배신감을 갑질적 분노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져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피해 망상적 분노가 나타납니다. 가져보지 못했기에 소망과 믿음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남겼는데 형수가 형을 선동하여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살인사건이 터지기까지 합니다.
돈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마음의 공백이 이러한 두려움을 줍니다. 이 두려움에 쫓겨서 마음의 지성소에 이 돈을 믿고 추구하려 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나면 그가 원수가 됩니다. 설령 가족이라도 살해할만한 분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앞선 22절이 갑질적 분노를 경계했다면 24절 말씀은 이러한 피해 망상적 분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천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아파트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조장한 공범도 같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의 좋은 예입니다. 나와 함께 묶여있는 사람이 분노에 가득차서 벌이는 일에 나도 말려들 수밖에 없고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26절에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이해관계로도 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결혼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지구 밖에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은 전부 세상의 가치와 결혼한 사람들뿐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회에서 관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그들과 이해관계로 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가치와 결혼한 사람들과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마음의 결혼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상태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십자가를 전할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기존의 관계에서 재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더라도 동창으로써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전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야 할 인간관계일 뿐입니다. 절대로 돈이나 명예나 자존심과 같은 이해관계를 위해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의뢰함이 사람과 연합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려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면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입니다. 확장하고 팽창하려는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결혼한 마음은 더 높아지려하고 더 넓어지려합니다. 상향을 꿈꿉니다.
반면에 29절을 보면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높아지거나 넓어지려고 하는 상향식 사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결혼하여 만족하는 자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 삶을 집중시키는 이들은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고 넓어지려고도 하지 않지만 왕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성이 움직이시면 원한 적이 없더라도 왕 앞에 서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대표가 요셉이고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결혼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결혼이 잘못되고 망쳐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 생활화에 총력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결혼하고자 유혹하는 모든 가치들에 대해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결혼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모든 망쳐진 결혼의 후유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열매 맺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